

총장 선출제 논의 법인, 일방 결렬 선언

조인원 총장

“선출제 논의 대학이 해야”

공영일 이사장

“법인, 논의 과정에서 빠질 것”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지난 4일 재개된 차기 총장 선출 논의가 법인에 의해 다시 결렬 사태를 맞았다. 올해 11월 23일 조인원 총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난 13일 오후 4시에 열린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에서 법인이 돌연 결렬을 선언했다. 8월 7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의 결렬 사태 이후 29일 간 열리지 않았던 실무회의가 지난 4일 재개된 지 10일 만이다. 법인과 대학평의위원회(대평의)의 재개 합의로 봉합됐던 양 측의 갈등은 이번 2차 결렬 사태로 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에서 대평의 측에 법인은 앞으로 총장 선출제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공영일 이사장은 이사장 본인과 법인 조여원 상임이사, 조인원 총장이 지난 10일 총장 선출제 논의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조인원 총장이 총장 선출제 논의 과정은 대학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영일 이사장은 조인원 총장의 의견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실무회의에서 공 이사장은 “앞으로는 대학이 총장 선출제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며, 법인은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빠질 것을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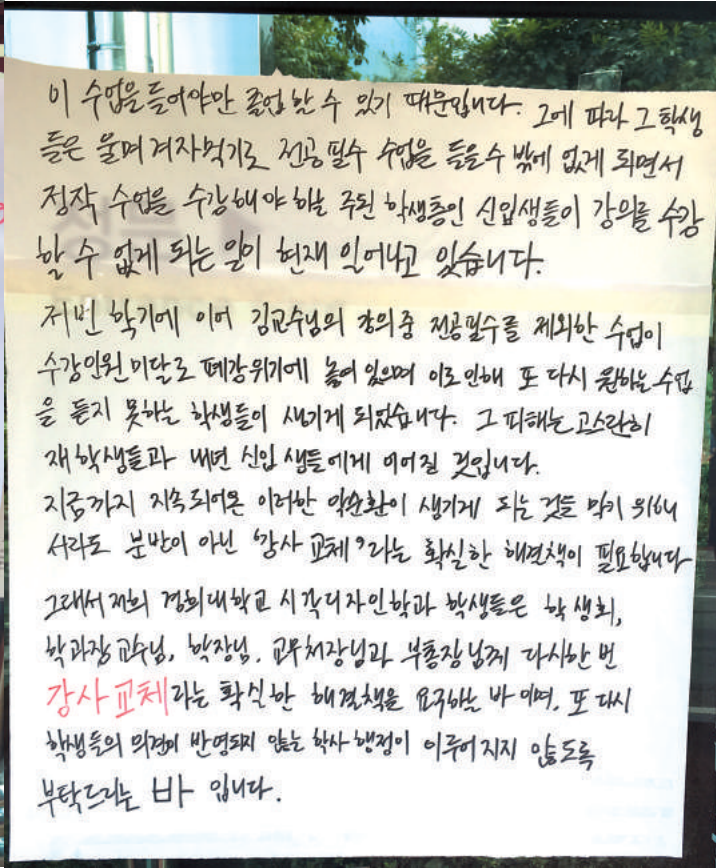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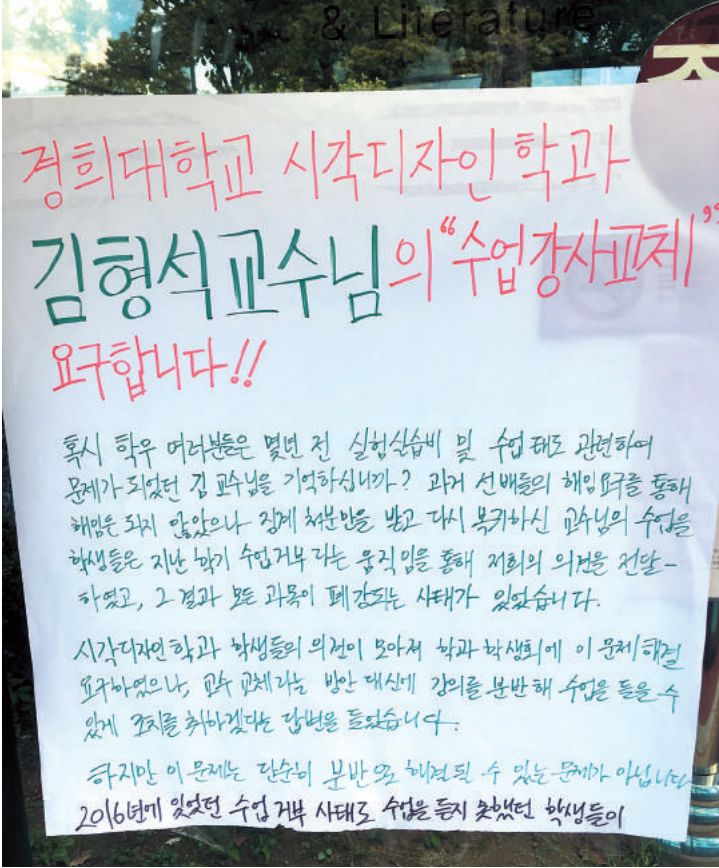
공영일 이사장의 결렬 선언으로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이어져 온 법인과 대평의 간 총장 선출제 논의는 결국 개정안 합의라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파국을 맞았다.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경희학원 정관 개정 권한은 법인에

있다. 또한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상태에서 법인이 돌연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무책임한 횡포라는 규탄이 이어졌다.

대평의는 법인의 결렬 선언에 즉각 반발했다. 대평의는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그 동안 이사장은 법인소위원회와 대평의 양자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법인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며 “총장 선출제 개정안을 두고 직접 투표와 선임위원회 위원 비율 조정 등을 직접 제안한 자리에서 공영일 이사장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의 틀을 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대학을 혼란에 빠트리며, 구성원을 모독하는 심각한 일탈 행위”라며 “이사장의 돌출 발언에 대한 진위를 물었지만 이사장은 명확한 해명 없이 ‘미안하다, 유감이다’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회의를 떠났다”고 밝혔다. 우리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공영일 이사장은 “아직 대학주보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학내 일각에선 법인의 시간 끌기 전략이 극에 달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진행됐던 총장 선출제 논의가, 법인의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의 결렬 선언으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법인이 지난 6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에서 “오는 추석연휴 전에 새로운 총장 선출제 주요 형식을 확정하기 희망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의 2차 결렬 사태로 총장 선출제 개정안 논의는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21일로 유력하게 접어들었던 총장 선출제 개정 데드라인도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는다면 그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 수업 강사 교체 요구

실험실습비 600만원 ‘사취’ 논란 불거진 시디과 김형식 교수

학생들, 600만원 카메라 수업에 만저 본적도 없다 증언

수강거부 운동으로 강경 대응 3학기 동안 폐강된 과목만 6개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지난 4일, 국제캠퍼스(국제캠) 교내 버스정류장마다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김형식 교수님의 수업 강사 교체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 명의의 대자보는 “김형식 교수는 지난 2016년, 실험실습비 사취 및 강의 태도로 문제가 돼 수강생들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올해 이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공 기초 수업을 신청해 주된 수강 대상인 신입생은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무과가 내놓은 강의 분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강사

교체라는 확실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식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6년 수업 거부 운동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김형식 교수가 진행하는 전공기초 수업인 ‘시각디자인연구’ 강의에 대한 제보가 게시됐다. 교내에 대자보가 붙는 등 학생들의 지속적인 불만 표출이 줄을 이었다. 당시 ‘시각디자인연구’ 수업을 수강하던 학생 40여 명 중 4명을 제외한 학생들이 수업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2016년 12월에 정직처분을 받았고 2017년 1학기에 복직했다. 당시 학생회에 따르면 김 교수의 징계 사유는 실험실습비 사취, 폐강 위기 수업에 타 학과 학생 동원 등의 이유였다.

김 교수가 복직하자 학생들은 다시금 해임 서명운동을 하고 학부모와 동문에 해당사항을 알렸다. 학생들은 동문으로부터 2009년 이후로 누적된 자료를 받아 ‘시각디자인과 김형식 교수 해임 요구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 교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2017학년도 2학기, 김형식 교수의 강의가 개설됐지만 학생들은 또 다시 수강 신청을 거부해 김 교수가 담당하던 전공 선택 두 과목이 폐강됐다. 2018학년도 1학기에는 전공 선택 두 과목이, 2학기에는 전공 선택과 전공 기초 과목이 각각 폐강됐다.

이따금 폐강으로 인해 졸업에 필요한 전공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생회, 교무처, 학과장, 학장이 참석한 긴급회의 끝에 나온 절충안은 ‘시각디자인연구’ 강의 분반이었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회 측은 “학생회는 강사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미 강의가 개설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분반은 전공 선택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 같은 교수의 수업을 여러 시간대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분반은 전공 기초 수업을 둘로 나눈 이례적인 경우

이며, 김 교수와 다른 교수가 담당하여 수업을 개설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김 교수의 강의 수강을 거부했고 교무처와의 재논의 끝에 다른 교수의 수강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김 교수의 수업을 신청했던 20여 명의 학생이 분반된 강의로 옮겨가 50명 정원 강의의 약 70명이 듣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50여 명이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것도 많은데 수강 거부 사태로 7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어 수업 환경이 열악하다”며 “교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교수와 학생 모두 힘들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학생회 측은 “김 교수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진행된 일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진행될 일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 시각디자인학과 학생회 측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김 교수와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총장 선출제 첫 학생 간담회 열려 … “소통할 수 있는 총장을 원한다”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대학평의위원회(대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총장 선출제를 선택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첫 학생 간담회가 이뤄졌다. 지난 1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엔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과대 학생 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1부에선, 서울캠 총학생회 송태현(경영학 2014) 회장이 실무회의가 처음 꾸려졌던 지난 6월부터 간담회 당시까지 주요 경과와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대평의와 법인이 제시한 두 개정안의

차이점과 구성원 참여에 대한 시각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2부에서 화두가 된 것은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이 제시한 구성원 투표의 골격이었다. 학생들은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선거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와 아울러 학생 투표권 비율 향상 등 구체적인 주장을 연신 쏟아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강다영(컨벤션경영학 2017) 씨는 “학생 직선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총장 선출제를 개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직선



제를 위해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낙현(자율전공학 2017) 씨는 “직선제는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것에서 정

당성 충족은 가능하나, 특정 집단에 영합한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차기 총장에게 중요할 역량과 비전에 대해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통’을 강조했다.

박원규(사학 2014) 씨는 “학생들과 제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양서(자율전공학 2018) 씨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차기 총장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송 회장은 “차기 총장 선출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대표단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엄중한 목소리를 반드시 이번 제도에 녹여내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시선

사설

서로 미루다 파국에 파국
학생·교수·직원 행동하라

한때 파행을 맞았다 겨우 재개된 총장 선출제 실무 회의가 이번에는 법인에 의해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법인은 지난 회의에서 향후 논의에 법인은 참석하지 않으며, 대학이 총장 선출제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 총장 임기가 막바지인데 아직까지 제도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하겠다, 말겠다 수준에서 알 가알부 하는 형국이다. 아니, 파국이다. 제도 개정의 권한을 가진 법인의 이러한 선언은 무책임한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이 초강수를 두며 총장 선출제 개정 논의의 판을 흔들고 있지만 대학평의원회는 휘둘리기만 하고 행동에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지난 11일 총장 선출제 학생간담회를 열고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시피하다. 시기상으로 학생간담회가 파국에 앞서 진행된 것이긴 하나, 문제는 학생간담회조차 그것으로 그쳤다는데 있다.

더욱 개탄할 일은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대표자의 발언이다. 학생의 참여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한다든지, 이로 인해 학생사회 분열이 발생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말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 현 서울캠 총학이 재선거를 통해 뒤늦게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실로 오랜만에 전학대회를 열고, 대학 측에 학생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보며 행동하는 학생회를 기대했는데, 정작 그간의 요구를 관찰시킬만한 권한이 있는 자리, 즉 총장을 선출하는 일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모란 돌이 정 맞는다고 한다. 서울캠 총학이 학생간담회라도 열고 움직임을 보였기에, 무언가 일할할 근거를 제공했기에 이 같은 쓴 소리도 가능하다. 대학평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구성원은 무얼 하고 있는가.

지난 사설에서 ‘휴면파워’가 있어야 개정이 의미를 갖고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개강 첫 주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추석 연휴 전 제도 개정의 마지막 적기마저 놓칠 위기에 처한 지금의 상황을 돌아봐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구성원 자신들이다. 그저 때를 기다리다 지금의 상태에 봉착한 모습을 보니 안타까울 뿐이다.

2014년 연말, 조인원 총장의 3연임이 결정됐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법인은 ‘합법적으로’ 총장 선임을 진행했다. 일이 끝난 뒤에야 각 구성원들은 ‘밀실 선출’이라 비판하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선임 과정을 소명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조 총장 본인도 3연임 후 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사회에서 진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4년 동안 그 적절한 시기가 없었던 것인가. 4년이면 세대가 갈리는 학생사회는 차치하고서라도, 직원과 교수는 4년 간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또다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지난 시기를 통해 돌아봐야 한다. 각 구성원의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바이다.

대학은 지금

학내 재정·정치 문제 가시화

안나연 기자 na@khu.ac.kr

중앙대 노동조합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노조 동의 없이 개정된 연봉제규정’에 관련해 대학본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노동조합, 일방적 급여규정 개정에 단체 행동 예정/중대신문, 2018.9.3**) 노동조합은 대학본부와 “지난 2012년 포괄산정임금제를 통해 2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춘섭 노조위원장은 “대학본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의지를 표하면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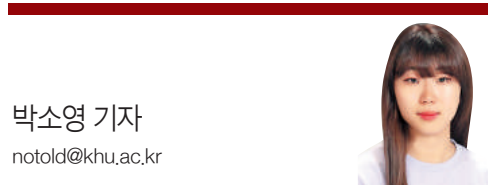
연세의료원이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과 미래관 건립을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재정적인 우려가 있었다.(**세브란스 ‘몸집 불리**

만평



이 주의 주제 - 중도탈락율 감소를 위한 유학생 지원

유학생 지원 ‘더 세심히, 더 가까이’



외국인 유학생과의 생활은 이제 일상이다. 사실 이 말이 별로 와 닿지 않았다. 기자가 속한 단과대학에는 유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생이란 버스정류장을 지날 때 만나는, 교양과목에서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옆, 옆 조의 아이들이었다.

이들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번 유학생 기사를 맡게 되면서, 우리학교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다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직접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을 알고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정든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한국에 꿈 하나 안고 온 용감한 유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유학생을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우리학교는 유학생들이 그간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언어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운영하고, 한국어 수준이 높은 유학생을 뽑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유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국어 심리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유학생에게는 잘 전달되진 않은 것 같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국제교류처는 학생

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학생은 매우 드물었다.

유학생도 마음을 놓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유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하기 보다는 무작정 좋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을 한국 학생들이 맥면대로 받아들어 깊은 실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만나본 유학생들 역시 힘들다고 말하기보다 괜찮다,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기 단톡방의 존재를 몰라 1년이나 단톡방에 초대되지 못했던 게 과연 괜찮았을지는 의문이다. 학교에 어떤 건물과 시설이 있는지, 어떤 제도가 바뀌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공지를 받지 못해도 좋았을까? 타지에 혼자 고립된 채 생활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모국이 아닌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다.

유학생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국제캠 국제교류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 수월성 제고 TF’를 만들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유학생을 많이 접하는 각 단과대학별 교수로 구성됐다. TF 규모가 커지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도 포함시켜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우리도 외국인 유학생의 괜찮다, 좋다는 말을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끼리만 몰려다녀요,”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가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과 우리가 더 함께 어울리고 더 함께 공부해 나가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

속도의 논리는 멈출 줄 모른다

세시봉

안나연 <서울뉴스팀장>



장애증후군 당사자로서 <거부당한 꿈>을 쓴 수전 웬델은 장애를 규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삶의 속도’를 언급한다.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자연히 효율성을 쫓는다. 그러다보면 장애인이 가진 특징은 ‘속도에 맞출 수 없는 결함’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차별이 당연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조금 느려도 더 많은 구성원과 같이 걷기보단 빨리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아쉽다.

지난 2일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결정됐다. 합의 과정에 대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무릎까지 꿇어가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한 학부모에겐 다행인 소식이다. 그러나 나는 특수학교가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로서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최선으로 보인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학교는 통합학급이라 하며 통합교육을 받는다. 이 학급에 속한 특수교사는 교수내용을 일부 수정하며 장애학생을 포함한 수업 구성원의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엔 특수교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통합학급에 비장애·장애학생이 함께 존재해도 장애학생은 별도의 지도를 받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다수의 학부모가 자녀에게 특수학교를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학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분리해서 가르친다. 사회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는 시기부터 별개의 공간에서 분리되어 수업을 받다 보면 심리적인 거리감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일전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다녀온 시각장애학생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조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아기취급’을 하거나 아예 무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차별을 의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심리적 거리감이나 무지에서 기인한 의도치 않은 차별은 ‘분리교육’을 받은 세대 내에서 빈번할 수밖에 없다.

계기판의 숫자가 올라가다 보면 풍경도, 뒤에서 걷는 이도 지나치게 되기 마련이다. ‘빨리’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느리게 걷는 동행인은 걸림돌일 뿐이다. 우리는 느린 속도로 걷는 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어떠한 처치가 필요한 문제로만 인식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로 둔갑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학업 이해의 속도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빠름과 느림을 가르고 느림을 배제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논리로 세상을 보다보면 나 역시 언젠가는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특수학교가 더욱 많아지는 것에 반대한다. 피상적으로만 나도 지난 4년간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던 사람들과 같은 모양새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의 논리로 말한다면, 나는 포용의 논리다. 우리가 ‘빨리’를 쫓기보단 ‘같이’를 추구하며 속도를 늦출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누기 보단 더하기를 통해 느리면 느린 대로 괜찮은 세상을 만들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최영규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7(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1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921

“환자가 중심이자 주인” 후마니타스 암병원의 포부

양여진 기자 clcl@khu.ac.kr

“환자가 주인인 암병원을 만들고 싶다” 오는 10월 개원 예정인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 암병원(후마 암병원) 준비단장으로 임명된 경희의료원 정상설(유방외과) 교수의 말이다. 정상설 교수는 암병원 개원 후 암병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대학교의 건립 이념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의학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그는 평소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가치 중 하나가 ‘환자 존중’이라고 밝히며 “치료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등 인간적인 삶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마 암병원은 국내 암환자에게 환자별 맞춤 정밀의학과 암 면역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후마 암병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 3개 분야 통합 치료 시스템을 실시한다. 암 환자의 약 40% 정도는 구강 합병증을 앓는다. 정 단장은 “치과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 환자에게 더욱 편리하다”고 통합 치료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했다. 덧붙여 “암 환자는



면역력에 따라 예후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암 병원 안에 한의학 면역센터를 구성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면역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학·한방·치과병원 모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가능한 협진시스템이다.

후마 암병원은 개원 후 ‘외래진료·단기입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환

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치의학·한의학 다학제 진료팀과 암 전문 코디네이터팀도 준비됐다. 환자가 처음 방문하면 진료 및 치료계획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장소 이동 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암병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연구기관인 영국 ‘도열마스덴’ 의료진과 화상협진 및 공동연구도 실

시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암 임상 공동 연구는 암 면역 치료와 면역제제 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화상협진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외래진료와 연구에 중점을 두면 재정적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단장은 “환자를 수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다보면 초기에는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최선의 가치를 추구하다보면 결국엔 그 진심을 알고 많은 환자들이 찾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무료로 가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에 본점을 둔 가발 회사가 동참하겠다고 나서서 가능한 것”이라며 “좋은 의도를 추구하다보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수익도 자연히 따를 것이라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경희의료원의 부족한 연구 실적을 들어 후마 암병원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

단장은 “연구가 취약하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 수용해야한다”면서도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넥신과 협업해 젊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다보면 장기적으로 연구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의 말대로 후마 암병원은 맞춤형 항암치료와 암 면역제제 개발을 위해 바이오 기업 ‘제넥신’과 협업할 계획이다. 협업을 통해 정밀의학연구소를 개설하면 유전자 검사가 용이해져 환자 맞춤형 치료도 지원할 수 있다. 제넥신과의 업무협약은 정밀의학연구소 개설에 그치지 않고 암 임상연구와 의약품 연구개발, 면역항암제치료 개발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정 단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암을 넘어 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경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환자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우리학교 및 경희사이버대, 외부전문가와 연계한 무상가발 제공·뷰티클래스, 영화·미술·음악치료 등 총 15종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간적인 삶도 도울 계획이다.

색다른 수강신청제도 개선안, “모든 학생이 듣고 싶은 강의 다 들어야 한다”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해 무산됐던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이 다시 언급됐다. 2017년 2월,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는 수강신청 방법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강의 수를 늘리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강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계획을 발표했으며 강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 ‘책임시수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선안은 2019학년도 1학기 후마니타스칼리지 제도와약을 계기로 개설될 ‘수강신청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별 강좌개설 및 강의 계획서 입력은 현재와 동일하다. 그러나 수강신청 기간에 과목당 전체 수강인원 및 학년별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동시에 과목별 적정 수강인원을 표시한다. 이후 실시간으로 과목별 현재 수강신청 인원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기존의 수강신청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조합해 세 가지 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표를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구성할 수 있고 각각의 시간표에 같은 수업을 반복해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수강신청이 종료되면 과목별 강좌 수와 강의실이 조정된다. 적정인원보다 학생 수가 초과되더라도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 한도 이내인 경우 1개 강좌로 개설한다. 예를 들어 강의 적정인원 80명, 강의실 수용인원 100명, 수강신청인원이 80~100명이면 1개 강좌로 개설된다.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대형 강의 1개 또는 분반되어 개설된다. 예를 들어 적정인원 80명, 강의실 수용인원 100명, 수강신청인원이 101~200명인 경우 기존보다 수용인원이 많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복수의 강의를 개설한다.

그러나 분반된 강좌의 새로운 강의 시간에 배정된 학생은 다른 과목과 시간이 겹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가 발생하면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 다른 강좌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반대로 수강신청 인원이 기존보다 적으면 지급처럼 폐강 기준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된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현재와 같이 개강 후 일주일이다. 수강신청 정정은 수강 인원으로 인한 분반이 결정됐을 때 가능하다. 또한 수강신청 결과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조합한 세 가지 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강신청이 시간표의 세 가지 안중 하나라도 일치할 때는 정정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해 분반이 생기고 또 다른 학생들도 시간표를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수강신청 개선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제도 변경에 따른 ‘책임시수제도’가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책임시수제도’란 교수가 한 학기에 15시수에 맞춰 강의를 개설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강의 시간에만 제한이 있고 그 외에는 별

다른 제재가 없어 대부분 교수 중심 강의가 개설된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조영욱(의예과) 위원은 “단약 위의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이 채택된다면 학생중심의 수강신청이 진행된다”며 “이 때문에 교수별로 책임시수에 맞춰 강좌를 개설하더라도 책임시수가 초과 또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는 이번 수강신청 개선안에 ‘책임시수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일단 강의 계획서 입력은 15시수에 맞춰 진행하되, 강의 개설을 기피할 경우는 급여를 환수한다. 개설 확정 후, 개설 강좌가 15시수를 초과할 때는 시간감사 기준으로 초과 강사료를 지급한다. 반면 개설 강좌가 부족할 때는 두 가지 안이 존재한다. 1안의 경우 급여환수는 1년 유예하되 2년 연속 부족 시 2년차의 1년간 시수 부족분 급여를 환수하는 것이다. 2안의 경우 급여 환수는 없으나 교육영역 점수에만 반영 하는

것이다. 교육영역 점수는 교수 별 실제 개설강좌 전체 시수를 반영하여 업적평가를 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이처럼 수강신청 개선안에 맞춰 ‘책임시수제도’도 개선된다면 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한 강의를 늘려 학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의가 우수한 교육 중심 교원과 연구력이 높은 연구 중심 교원으로의 자연스러운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교수 중에서 연구실적이 부족한 경우 교육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수강신청개선안이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려면, 수강신청제도 개선의 실무부서인 교무처 학사지원과와 정보지원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수강신청제도 개선안이 실무부서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면, 학사지원과는 개선된 수강신청제도를 참고하여 책임시수제도역시 개선해야 한다.

경희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 이용 안내

개인상담

상담심리전문가와 1:1 면담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깊이 있게 자기를 이해하여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용방법

신청
(직접 방문 or 전화신청)

접수면접

심리검사

상담진행

심리검사

개인의 성격, 정서, 심리적 적응상태, 적성, 흥미 등을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사로 평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용방법

신청
(직접 방문 or 전화신청)

심리검사
(성격 및 기질, 적응 관련 검사, 진로 및 적성, 학습 검사 등)
* 검사 종류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음.

해석상담

✓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실시되는 상담 및 심리검사는 경희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모든 상담내용은 [상담자 윤리강령]의 비밀보호 원칙을 따릅니다.

· 위치: 학생회관 1층 103호 · 전화: 02) 961-0204, 0207

경희대학교 여대혁신관 학생지원팀에 실려상담연구소

2018 경희인 마음 건강 캠페인

일시

2018년 9월 17일~18일

장소

청운관 앞 마당 부스

Aroma Therapy '나만의 향초 만들기'

새 학기 중후반 탈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나만의 향초 만들기’

향 선택 ➡ 색 선택 ➡ 향초 만들기 ➡ 굳히기 ➡ 나만의 향초 완성!

* 선착순 일 50명 한정

소요시간 20분 내외 운영시간 9월 17일~18일 (오전 10시~오후 1시)

관심으로 지키는 소중한 생명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존중 서약에 동참해 주세요.

*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소요시간 1분 내외 운영시간 9월 17일~18일 (오전 10시~오후 4시)

마음건강 SMART 검진

SMART기기를 활용한 검진 및 상담지원
(스트레스, 우울, 자살경향성)

대상자 학생, 교직원 진행 동대문구 보건소 · 동대문구청신청건강복지센터

소요시간 5~10분 내외 운영시간 9월 17일~18일 (오후 1시~오후 4시)

경희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

2018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

기간

2018.09.12(수) ~ 2018.10.14(일)

대상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학부 / 대학원)

방법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http://web.khu.ac.kr/~happyou>)에 탑재된 5개 영역별 영상 시청 후, 폭력 예방 퀴즈 답안 작성하여 제출
(* 10문제 모두 맞은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100명에게 경품 지급)

내용

1. 성폭력
성폭력구분
유형별
서로 돕는 방법
(10분 10문제)

2. 성희롱
관련법 제정배경
(10분 10문제)

3. 성매매
성매매, 사형에서
다행으로
선택하기
(10분 10문제)

4. 디지털성폭력
‘잘 받았어’라고
알지 마세요
(10분 10문제)

5. 동성애
성폭력 피해자,
지급에서
필요한
(10분 10문제)

결과발표 2018.10.16(화)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공지)

문의 02) 961-0208 / happyou@khu.ac.kr

10문제 모두 맞은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1등 보조배터리 9000mAh (5명)

2등 USB 16G (10명)

3등 데스크 텀블러 (10명)

4등 트라이탄 보틀 (10명)

5등 스타벅스 카드 1만원권 (30명)

6등 스타벅스 카드 5천원권 (35명)

* 상품 품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캠퍼스 성평등상담실

대학사회

총여 등진 대학가, 남녀 화합 성평등위로 탈바꿈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오는 10월, 국제캠퍼스(국제캠) 총여학생회(총여) 존폐를 놓고 학생 총투표가 예정돼 있다. 제28대 총여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총여 존폐 안건을 직접 제청했다. 김 전 부회장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총여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학생들 사이에 부유하는 상황이다”며 “많은 노력을 기했지만 총여만으로는 학내 모든 성을 아우르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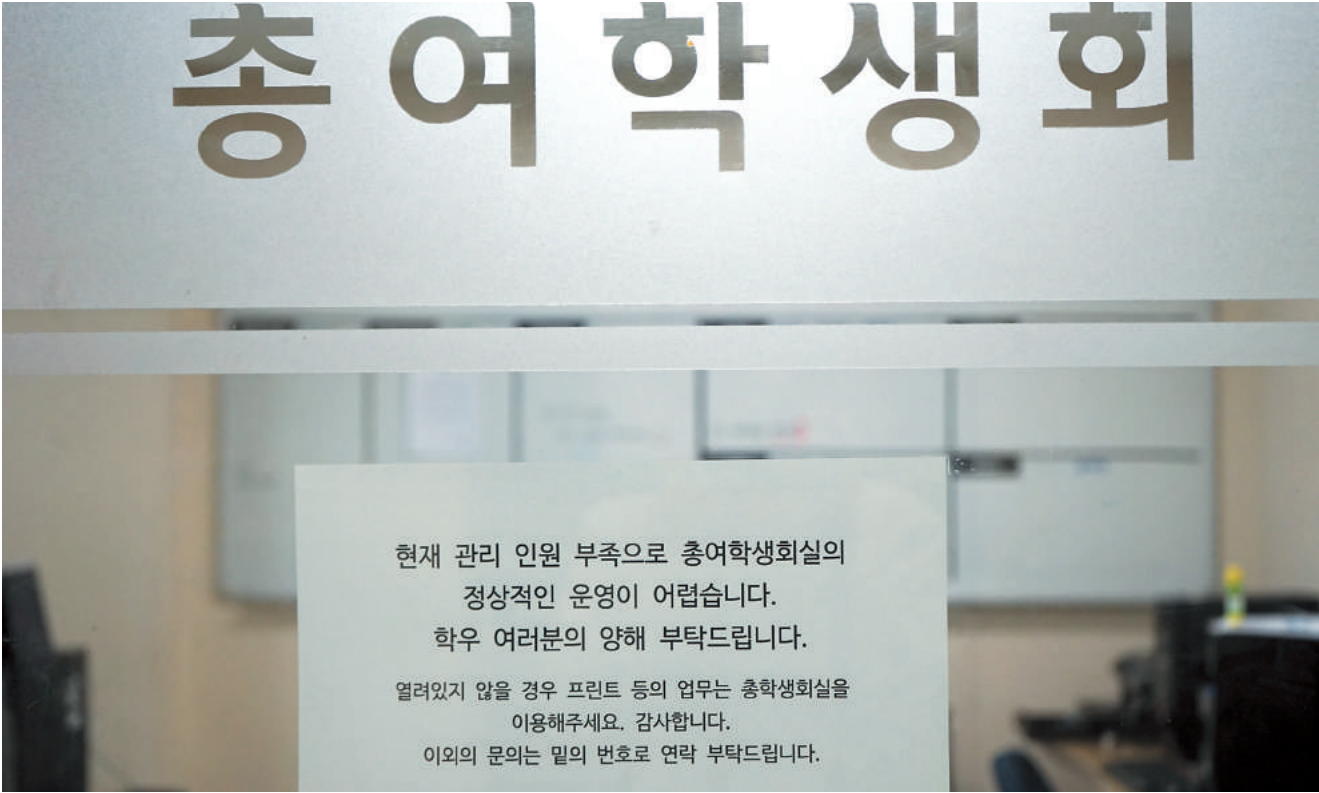
대학가 총여는 1980년대 후반 대학 운동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우리학교 총여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약 3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여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최근 후보자 미등록, 남학생 역차별 논란, 자치회비와 투표권 논란, 불분명한 정체성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존폐 논란을 빚어왔다.

대표적으로 2013년,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남학생이 자치회비를 납부하면서도 총여 투표권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총여 회칙 제2조에 따르면 ‘본회는 회원의 권리 증진 및 평등한 학생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5년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한 달 사이에 총여 존폐를 논하는 대자보가 6개나 붙기도 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변화도 있었다. 2016년에는 국제캠 총여 투표권이 남학생에게도 개방됐다. 동시기에 회칙 개정으로 남학생이 총여학생회장 및 부회장으로의 출마도 가능해졌다. 그 결과 제28대 총여에서 최초의 남학생 대표자가 선출됐다.

그러나 미미했던 공약 이행으로 총여는 학생들의 인식에서 점차 지워졌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학교 학생 A씨는 “고양이버스나 간식 사업이 여학생에, 나아가 성 평등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총여 사업에 특별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총여를 알지만 전혀 기억에 남는 사업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캠 총여는 지난해 11월 9일, 제30대 총여 ‘우리사이’ 양해인(국어국문학 2015) 회장의 사퇴 이후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몰카 예방 사업, 간식 사업, 예방접종, 고양이버스 등 학생 복지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기구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성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은 존재해야 하며 남녀가 화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평등 이뤄야 한다.

”

지난 3월 11일, 총여는 제31대 총여 보궐 선거를 공고했지만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두 달이 지난 5월 14일, 다시 한 번 보궐선거 공고가 이뤄졌지만 역시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지속적으로 출마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서울캠 총학은 여전히 남학생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총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는 우리신문이 지난 2013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가 뒷받침한다. (존폐 고민하는 총여 ‘존재’ 공감대 형성해야/대학주보 제1539호, 2013.4.8.) 당시 설문 조사에 응답한 1262명 중 55.9%(706명)이 총여 폐지를 원했다. 그 중 절반이 넘는 51.6%(365명)은 ‘총여의 역할을 총학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고 17.5%(124명)는 ‘남학생은 총여에 자치회비를 내지만 투표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외에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총여가 아우를 수 없다’, ‘공약 이행률이 떨어진다’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또한 65.4%(826명)이 여학생을 위한 기구로 ‘총학 산하 성평등 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4.4%(309명)가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0%(127명)의 기타 의견으로는 ‘필요 없다’, ‘오히려 남성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현재 공식인 국제캠 총여를 대신해 총학은 산하기구로 ‘성평등인권위원회(성

평등위)’를 임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총학은 총여 부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앙운영위원회 또한 지난 4월 4일, 성평등위를 시범 운영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바 있다.

성평등위 서정유(전자공학 2012) 위원장은 “총여의 고유 복지사업이었던 고양이버스, 몰카 탐지 등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 파급력이 강한 총학에서 시행하다 보니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평등위는 학내 인권, 성평등, 성차별 등의 문제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교내 성폭력 사건은 사실 관계 확인 후 성폭력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외 사건은 경찰과 연계해 진행한다. 또한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성평등위는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강의 초청과 도서 구비도 계획 중이다. 서 위원장은 “총여의 공식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며 오히려 전체적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총여가 아닌 별도의 성평등 기구가 총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비단 우리학교만이 아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한양대학교연 각각 총여가 존재하지만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식인 상태다.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는 총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학교들은 총학에서 성평등 사건을 관리하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성평등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하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 전병수 부회장은 “과거에 여학생위원회가 있기는 했으나 현재는 업무 활성화, 재생산의 실패로 사라졌다”며 “현재는 총학에 소속된 ‘인권연대국서’에서 성평등 의제를 비롯한 각종 인권 사안을 다룬다”고 전했다.

‘인권연대국서’는 구체적으로 인권 친화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카드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으로 부터 해방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인권 대중화 사업을 위한 ‘인권 주간’ 기획, 채식주의 사업, 생리공결체 활성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성차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의 성평등 센터와 연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총학 자체적으로 인권 규약을 제정해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전 부회장은 “성폭행 발생 시에 본부차원의 공식적인 문제 해결 루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공론화 및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 상담 진행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여 부재에 대해 전 부회장은 “인권연대국서를 중심으로 현재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주도 하에 성평등 의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총학 자체적으로 인권 의제를 다루기에는 전문성이나 집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학생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같은 특별 기구를 설립하여 성평등·인권 의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여성학개론’을 강의하는 정재원(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대학가 총여 폐지의 추세에 대해 “과거 총여는 여성 인권을 위해 조직됐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며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 또한 포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내에 성차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기구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은 존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성차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접수, 성평등토론회, 발길순찰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기대하며 남녀가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성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 서울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1. 훈련일자 및 대상(해당일 09시부터 8시간)

훈련일자	인원(명)	버스(대)	소속
계	761	18	
9. 21(금)	96	2	이과대학(73), 음악대학(22), 무용학부(1)
10. 4(목)	56	2	문과대학(34), 미술대학(4), 의과대학(4), 생활과학대학(10), 자율전공학과(1), 치과대학(1), 한의과대학(2)
10. 8(월)	477	11	약학대학(27), 경영대학(198), 정경대학(190), 호텔관광대학(62)
10. 10(수)	132	3	대학원(112), 간호과학대학(10), 약학대학(10)

2. 장소 : 육군 제56보병사단 221연대 금곡예비군훈련대(금곡훈련장)

3. 버스 출발장소 및 시간 : 청운관 앞 07시 50분

4. 전과 등으로 소속과 명단이 다른 경우 예비군연대본부로 통보

5. 훈련일 조정 희망자는 9. 14(금)까지 예비군연대본부로 요청(9. 14(금)일 이후 훈련일정 조정 불가) 상가훈련일에 훈련이 곤란할 경우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휴일 또는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여 이수가능

6. 훈련대상 확인요령

가. 9. 12(수) 이후 “예비군홈페이지 → 나의 정보 → 소속/훈련정보”에서 자신의 소속과 훈련사항을 확인 → 미 등록 확인 즉시, 예비군연대본부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나. 훈련안내 : 훈련소집통지서 교부(이메일) 발송, SMS 전송 예정

7. 복장: 전투모, 전투복, 군화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에 한하여 복장대여 가능 / 훈련 1주일 전 방문, 전화 신청)

8. 훈련 당일 신분증 지참(신분증 미휴대 시 입소 불가)

가능한 신분증 : 실물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모바일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9. 09시 이후 도착자 입소 불가(자기가 및 대중교통 이용자는 출근시간 교통정체 고려조기 출발)

10. 훈련 간 교관 / 조교 통제에 순응(안전수칙 준수, 신체이상 시 즉각 보고하여 조치 받을 것)

11. 입소 후 훈련 간 휴대폰 사용 시 경고 없이 강제 퇴소

12. 웨어러블 분실 시 개인 반상

13. 훈련 전날 음주자제(입소 및 교육 간 음주자 확인 시 강제퇴소)

14. 가방(백팩) 휴대대제 및 소지품(휴대폰, 지갑) 관리 철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2018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1. 개요

가.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나. 훈련장소 : 안성예비군훈련장(안성시 금석길 51(금석동) / 네비게이션 : 안성예비군훈련장 검색)

※ 용인예비군훈련장 공사로 인하여 안성예비군훈련장으로 변경됨

다.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 간
9월 17일(월)	◎ 국제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09:00 ~ 18:00
9월 18일(화)	◎ 체육대학	
9월 28일(금)	◎ 전자정보대학 : 전자공학(2, 3, 4학년)	
10월 1일(월)	◎ 전자정보대학 : 전자공학(학년), 생체의공학 ◎ 생명과학대학 ◎ 대학원(국제, 동서의학, 체육)	
10월 2일(화)	◎ 공과대학 : 환경학 및 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 동서의과학과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0월 5일(금)	◎ 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10월 8일(월)	◎ 공과대학 :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10월 10일(수)	◎ 공과대학 : 원자력공학, 화학공학 ◎ 응용과학대학 : 응용화학, 우주과학 ◎ 교직원	
10월 11일(목)	◎ 응용과학대학 : 응용물리, 응용수학 ◎ 외국어대학	
10월 12일(금)	◎ 대학원(일반, 교육, 아트·퓨전, 테크노경영)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시 입소 불가)

※ 전투복, 전투화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휴대하고 참석한 경우만 현지 대여가 가능함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3. 교통 안내

가. 학교 지원차량 : 학교정문 출발(7:35분) /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역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생소에 도착

4. 유의 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나.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만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입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제 지침 : 09:00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희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바람

사. 학적변동(휴학, 졸업 / 수료 등)으로 재학 중이 아닌 학생예비군은 훈련참석 불가

바.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바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중도탈락 문제, 언어 아닌 친구 “외로움이 가장 힘들어”

〈외국인 유학생〉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유학생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이던 국송지(관광학 2017) 씨가 한 말이다. 국 씨 말고도 인터뷰에 응한 유학생들 대부분은 원활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고립감을 유학 생활의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 유학생은 결국 한국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를 통계로 나타낸 것이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이다.

2017년도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6.3%를 기록했다. 비교를 위해 수도권의 10개 대학을 선정해 같은 기준으로 학교별 중도탈락율을 살펴봤다. 연세대(3.7%)와 고려대, 성균관대(3.6%)에 비해 우리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탈락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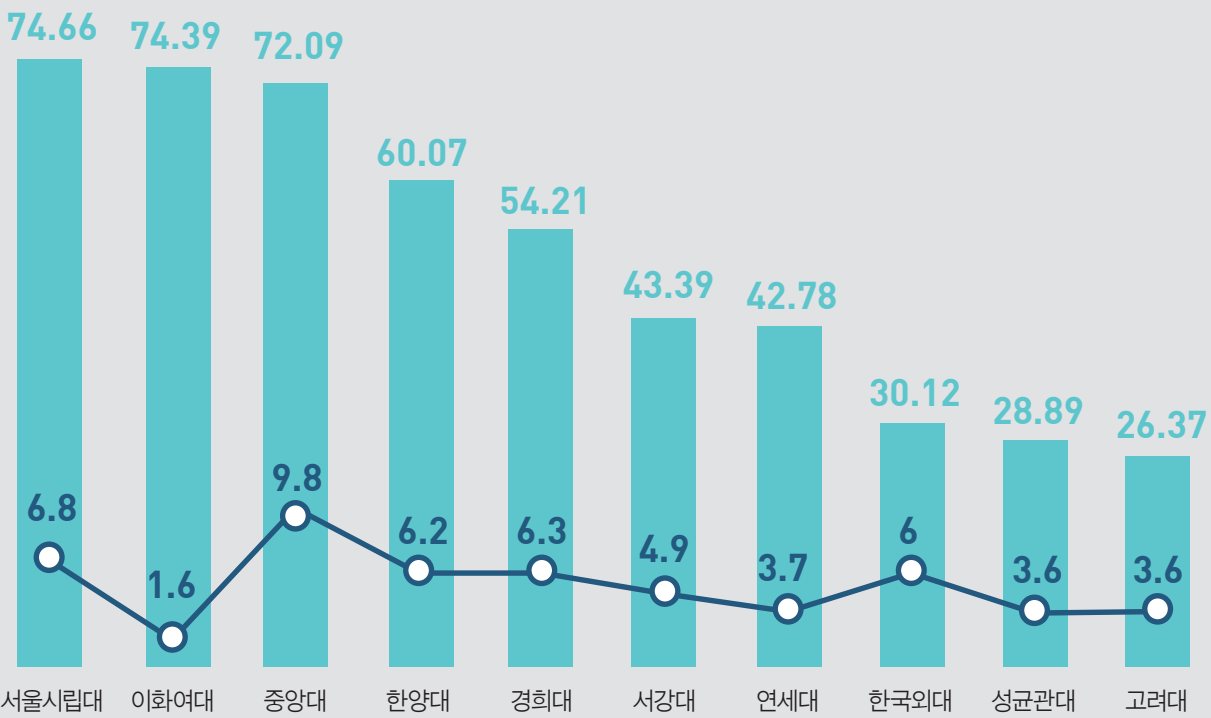
매해 증가하는 유학생 수 유학생 중도탈락율도 비례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1,711명, 2016년에는 2,071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2,317명, 올해는 2,770명이다. 이는 학위과정에 한정할 수치다. 여기에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 연수과정 학생 수까지 더한다면 올해 우리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4,626명에 달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학위과정 학생의 중도탈락율은 7.6%, 6.2%, 6.3%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학생 수가 늘어남에도 중도탈락율이 정체상태라면 결국 매년 중도탈락 하는 학생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학교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는 지난 달 ‘외국인 유학생 교육수월성 제고 TF’을 만들었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수월성 제고 TF는 각 단과대 별로 추천을 받은 교수 한 명씩으로 구성됐다. 국제캠퍼스 국제교류처 서경아 팀장은 “이번 TF를 통해 유학생의 교육 질 향상과 한국 학생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

서울 주요 사립대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대비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은 TOPIK 4급(예체능 3급) 취득 학생과 영어트랙 TOEFL 550 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다.
(출처=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년도=2017년)

국인이 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을 취득하는 것을 대학·대학원 입학의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신입학은 TOPIK 3급 이상, 편입학은 4급 이상의 학생을 뽑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비해 어려운 기준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인 ‘스터디 인 코리아’가 발간한 ‘2018년 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정착지원 우수 사례집’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유학 준비 과정에서의 한국어 습득 지원, 영어강좌에 대한 학습 지원, 한국어 강좌에 대한 학습지원 영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물론 언어능력관리는 유학생 지원 제도의 기본이다. 앞서 언급한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 전 준비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은 것은 한국어 능력 부족(30%)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예체능의 경우 3급) 이상, 영어트랙 TOEFL 55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비율인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

율을 보면 언어능력만이 중도탈락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 우리학교(51.4%)와 중앙대(72.09%)가 각각 6.3%, 9.8%의 중도탈락율을 보인 반면 연세대(38%), 고려대(26.4%)의 중도탈락율은 각각 3.7%, 3.6%였다.

언어능력과 따로 노는 중도탈락율 유학생들은 사회적 고립감 토로

지난 2016년 외국인 유학생 관련 논문 3편을 집필한 성결대 이수경(교육학) 교수는 “낮은 타지로 와서 대학생활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혼자서 고립되어 있다면 적응에 있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밀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터디 인 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유학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

감’(25%)이었다. 예능, 드라마, 대중음악 등의 매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에 호감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홍신이(언론정보학 2017) 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봤고 그런 방송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콩 출신의 크리스티 웅(관광학 2017) 씨는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자주 접했다”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새터와 MT를 가보는 등의 유학생활동을 기대하고 한국에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유학생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크리스티 웅 씨는 학사제도의 차이로 인해 가을에 첫 학기를 시작했다. 그는 “신입생 환영회, 새내기 배움터 등의 과 행사를 함께한 한국 학생들은 이미 서로 친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중국 출신의 두예진(체육학과

2017) 씨도 “동기 단독방의 존재도 알지 못해 입학한지 1년만인 지난학기에 단독방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학교가 유학생들의 친목교류와 정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교류처 외국인 지원팀은 한국 문화 체험 행사나 외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문화교류 활동을 함께하는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유학생 대상 심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험 행사는 단발성 행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고,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은 한 학기 정원이 20명에 그친다. 일본 출신 카토 유타카(유전공학과 2018)씨는 “학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지도 몰랐다. 또한 중국 출신 양우범(포스트모던학과 2017) 씨는 “학교상담은 ‘남과 상담하는 것이어서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친구에게 상담할 것이다. 고민 나눌 친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방식 개선해야

연세대학교에서는 연세글로벌, 멘토스클럽, IOY(International One Yonsei)라는 세 개의 내외국인 학생들의 교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동아리들은 학기마다 평균적으로 6~8개의 문화교류 행사를 주최하며 행사에 따라서 많게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각 동아리는 20명 가량의 운영진이 상시 참여하고 있고 IOY의 경우는 유학생들이 운영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학교는 동아리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 내용을 관리하기도 한다. 우리학교에도 국제교류처 산하의 내외국인 교류 동아리인 I.F.C.C.(International Friendship & Culture Club)가 있지만 단기 유학하는 연수과정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우리학교와는 달리 모든 국적의 유학생들이 모이는 총유학생회와 더불어 같은 국적의 학생이 모이는 국적별 학생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유학생인 홍콩 출신의 크리스티 웅(관광학과 2017) 씨는 “적응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온종일 혼자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일쑤”라며 “가족마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학생들에게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라고 말했다.

2018-2학기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안내

- 목적**
 -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진로탐색 등 심도있는 자아성찰 계기마련
 -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를 도출을 통한 학생 종합설계능력 함양
 - 교수-학생 간 실질적 지도 계기 마련
 - 지원대상**
 - 2018-2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
 - 공을 실행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규정 위배자, 2018-2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가계곤란정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한**
 - 경희공도전장학 기수해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경희공도전장학 기수해자를 팀원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타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ex) 독립연구, 전환2장학 등
 - 도전분야**: ①창업 / ②봉사 / ③탐방 / ④연구 / ⑤자유주제
 - 분야를 택일하여 장학신청 ※ 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선발인원**: 50명/팀 내외
 -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장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방법**
 - (1단계)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발인원의 1.5~2배수 선발
 - (2단계)면접평가 후 서류평가(100점)+면접평가(100점)로 최종대상자 선발
 -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 | 구분 | 평가항목 | |
|-------------|-----------------------------|------------------------|
| 서류평가 (100점) | 활동계획서(90점) | 공과 도전주제의 연계성(25점) |
| |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35점) |
| | | 실행결과의 공공성(15점) |
| | 교수추천서(10점) | 학생지도계획의 충실성(10점) |
| 면접평가 (100점) | 학생 잠재력, 도전의식 및 발전 가능성(20점) | |
| | 도전목표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20점) | |
| | 실행계획의 준비도 및 추진의지(30점) | |
| | 실행결과의 공공성 파악력 및 사회 기여도(30점) | |
- 장학금 지급액**: 1인/팀당 400만원
 - 장학생 선발시 300만원 선지급,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이후 심사를 통해 100만원 지급
 - ※ 장학금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 이행없이 도전을 포기할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300만원)은 반납해야 함
 - ※ 장학금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을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학금(1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음
 -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리더에게 전액 지급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장학)

-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8. 9. 17.(월) 09:00 ~ 10. 12.(금) 17:30 [4주간]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 1) 온라인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용자신청 → 2018-2학기 경희공도전장학
 - 2) 서류제출
 - 제출기간: 2018. 10. 10.(수) 09:00 ~ 10. 12.(금) 17:30
 - 제출처: 학생지원센터(장학)(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7번 창구)
 - 제출서류
 -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물) 1부
 - 경희공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부
 - ※ 활동계획서는 동 기간 내 janghak1@khu.ac.kr로 파일형태로도 제출해야 함
 - 경희공도전장학 지도교수추천서(첨부양식) 1부
- 선발일정**

내용	일정	비고
1) 장학금 신청	2018. 9. 17.(월) 09:00 ~ 10. 12.(금) 17:30	
2) 장학설명회	2018. 9. 18.(화) 18:00, 청운관 301호	
3) 서류제출기간	2018. 10. 10.(수) 09:00 ~ 10. 12.(금) 17:30	
4) 면접평가일	2018. 10. 30.(화)	시간 및 장소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5) 선발결과 발표	2018. 11. 5.(월) 10:00	학생지원센터(장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6) 1차 장학금 지급	2018. 11. 9.(금)	

- 장학생 의무사항**
 -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경희공도전장학 커뮤니티 참석 및 활동(학생자치활동)
 - 최종 결과발표회 참석
- | 내용 | 일정 | 비고 |
|--------------|----------------------|----------------------------|
| 공도전 기간 | 2018.11월 ~ 2019.8월 | |
| 중간보고서 제출일 | 2019.04.28.(일) 24:00 | janghak1@khu.ac.kr로 제출 |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일 | 2019.07.28.(일) 24:00 | janghak1@khu.ac.kr로 제출 |
| 결과발표회 | 2019년 8월중 | 학위수여식 이전에 실시,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
- 유의사항**
 - 공도전 기간 중(2018-2 ~ 2019-1학기)에는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할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을 반납해야 함
 - ※ 단, 복학학기에 중간-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발표회에 참석하여 최종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학금을 재지급함
- 기타문의**: 학생지원센터(장학) 961-0045-0046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세계평화의 날 기념 평화토론대회 본선 행사 안내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토론통아리 이감에서는 세계평화의 날 기념 토론투담회를 개최합니다. 예선을 통과한 16팀이 다음과 같이 본선행사를 진행하오니,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평화토론대회 예선 결과

- ▲ 내용: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후마니타스칼리지 평화주간 행사 - 평화토론대회 예선 개최
- ▲ 주제: 통일은 청년 세대에게 기회인가, 위험인가
- ▲ 일정: 2018.5.24(목)~6.7(목) 접수 및 심사 완료
- ▲ 진행: 예선의 경우 작당 토론 형식이 아닌 토론 전역서 문건 제출 및 심사로 진행하였음
- ▲ 본선진출 팀: 16팀 진출 확정

2. 평화토론대회 본선 안내

- ▲ 내용: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후마니타스칼리지 평화주간 행사 - 평화토론대회 본선
 - ▲ 주제: 2개(한 반 양쪽 입장 토론 준비)
 - 16강/준결승: 통일은 청년 세대에게 기회인가, 위험인가
 - 8강/결승: 남북한 통일의 길: 통치성의 회복인가, 이질성의 수용인가
 - ▲ 일시: 2018년 9월 21일(금) 09:00~17:30 예정(변경될 수 있음)
 - ▲ 장소: 청운관 B117호(4강, 결승) 및 강의실 예정(16강, 8강)
 - ※ 경희 구성원의 대회 참관은 4강과 결승전만 가능함 (청운관 B117호 15:00~17:30)
 - ▲ 대상: 본선 진출 16팀(팀당 4인 이내)
 - AL1-7208팀, 평이팀, 보라빛기팀, 보현팀, 오소리팀, 유승팀, 이우기팀, 이정팀, 정우정팀, 투명이팀, 토론팀, 토요일팀, 통하조팀, 평화팀, 평화로운한민도팀, 하라쇼팀
 - ▲ 방식: 토론장에서 자유토론 형식
 - 토너먼트 방식, 토론의 찬 반 입장은 제비뽑기 등으로 본선 당일 결정 예정
 - 토너먼트 대진표는 본선 당일 공개
 - ▲ 분량: 찬성, 반대 각 팀별 8분(기초발언 1분, 토론 6분, 마무리발언 1분, 토론 시 1회당 2분 제한)
 - ▲ 시상: 대상(1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금상(1팀)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수상(2팀)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입선(2팀) 상장 및 상금 10만원
- ▲ 기타: 본선 관련 행사 및 토론 경기 세부안내는 추가 공지문 및 개별공지 진행 예정
- 본선 진출 및 학생들에게 축식인정 협조 요청 공문 지령 예정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과 - 토론통아리 이감
(전화: 961-9339~40, 전자메일: khua0036@khu.ac.kr)

기획

문제해결력은 융·복합과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키워져야

미래교양리포트 : ② 교육 내용의 지향점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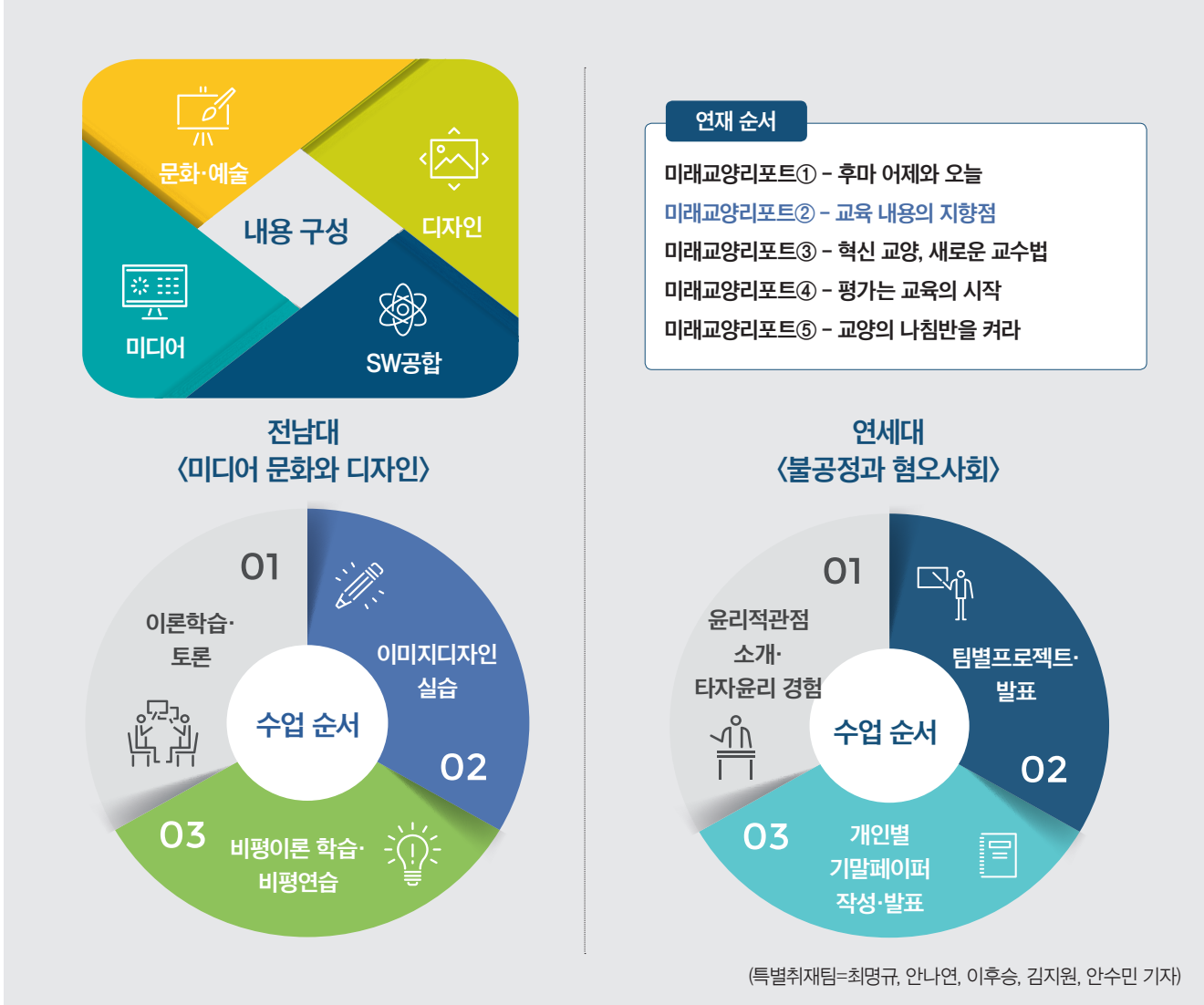
#. 다양한 학문의 배움터. 후마 만족도 설문 결과 학생들은 교양 교육의 본질로 전공을 넘어선 다양한 학문의 전당을 뽑았다. 다수의 교양 교육 전문가들도 종합적 세계관이 미래 교양 교육의 가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종합적 세계관은 융합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께를 같이 이룰 때 갖춰진다. 우리 신문은 이번 호에서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타 대학의 교양 교육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기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교양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짚어봤다.

“대학에서 전공교육만 독려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 한정된 지식인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시작부터 함께한 도정일 대학장의 말이다. 이어 도대학장은 학문 간의 융·복합과 비판적 사고 함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함을 말했다. 한국교양교육학회 흥성기 학회장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교양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시간”이라 표현했다.

다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두되는 가치는 문제해결력이다. 흥 학회장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전공-업무 일치도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하나의 전공에 대한 심화된 지식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이 더욱 강조된다. 문제해결력은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즉 융·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증대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이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힘이라면, 융·복합적 사유는 접근 방식이다.

해외 대학은 국내 대학보다 먼저 교양교육을 통한 융·복합의 가치를 알아봤다.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원형이 되는 하버드대는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연구를 거쳐 ‘교양 교육 TF’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양교육을 준비했다. 2007년 완성된 하버드대학부생의 교양교육과정안은 “자유로운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현실적 체험에 응용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브라운대 역시 동일하다. 브라운대는 오픈 커리큘럼(Open Curriculum)으로 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필



요한 과목만 수강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역시 융합이다. 지난 2016년 브라운 대학에 입학해 컴퓨터 공학과 공공정책학을 복수 전공하는 최지원 씨는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나의 선택이 존중받는 느낌”이라 말한다. 다양한 과목을 뚜렷한 경계 없이 배울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말하며 “결국엔 다양한 과목과 융합된 관점을 기르는 것이 내가 기존에 가진 틀을 깨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융합교육은 학풍이 뚜렷한 인재상이 굳건하게 지속돼 온 사립대학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주립대학인 버클리대 역시 융합의 가치를 중시한다. 버클리대는 필수 과목은 지정되지 않으나, 브레스 코스(Breadth Course)란 제도가 있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화학, 수학 등 일곱 개 분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궁극적으로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미국인 이어도 미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버클리대는 대학 교육이 갖는 의미를 사회공헌에서 찾는다. 공동체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문제 해결력을 갖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에 버클리대를 졸업한 김희수(정치학) 씨는 “인턴 및 직장생활을 경험하며 실제 삶에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함을 느꼈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경험 덕분에 능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구성원의 관심 분야와 전공에 공감할 수 있었다”며 “공동체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편 위와 같은 융합의 가치를 잘 반영한 국내 사례가 있다. 2017년 교양기초교육 교과목 공모전의 융·복합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남대의 ‘미디어 문화와 디자인’이 그 중 하나다. 미디어, 문화와 예술, 디자인, SW공학을 접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

결 능력과 융·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수업 시간 내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는 다양한 전공의 1,2학년이 협업을 통해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전남대는 융·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전공 교수 4명이 팀티칭 방식으로 교수한다. 문화와 문학을 전공한 류재한(불어불문학) 교수, 교양교육을 연구하는 민준기(독일언어문학) 교수, 문제기반 사고를 도모하는 정정호(디자인학) 교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생활 속 문제를 연구하는 이귀상(전자컴퓨터공학) 교수가 지난 4학기 동안 수업을 이끌었다. 과목 개발에 참여한 류재한 교수는 “21세기 학생들을 두고 19세기 교수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닌가 반성이 있었다”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진로가 즐비한 현대사회에 적합한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개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이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는 칸막이 사회가 아니다”라며 “전공의 의미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야와 관계없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력이다. 이러한 역량은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에 접촉하고 다각도의 관점을 가져야만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2017학년도 1학기에 수업을 수강한 전남대 구효주(경제학 2017) 씨는 “대학에 입학해 처음으로 들은 수업이었는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야도 많이 넓어졌다”며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제학과지만 미디어 문화와 디자인 시간에 배운 디자인 방법론, 이미지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활용해 시각이 더욱 확장된 것 같다”며 “특히 지역사회 문제에 접근법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연세대에서 강의된 ‘불공정과 혐오사회’ 역시 2017년 교양기초교육 교과목 공모전 인문 및 사회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성조(숭실대 베어드학부) 교수가 개발한 교과목은 현대사회의 윤리문제를 조망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를 가능케 한다. 자료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론적 틀을 깨도록 한다. 인식론적 틀이 깨지면 결국 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융합이 쉬워진다.

해당 교과목을 개발한 이성조 교수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곳”이라며 “한국사회는 그간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했는데,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싶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언급하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시야에 타자를 담아내는 기술이 부족하면 아이디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소통의 밑바탕이 되는 융합을 강조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은 “대학마다 고유한 인재상이 있고 학풍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윤 원장은 “그 방향성이라 하면 궁극적으로 문제해결력을 갖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교양의 본질인 융·복합 속성,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게끔 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교수칼럼



정진영
국제학 교수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정상이 곧 뉴욕에서 만나며,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지역 국가의 비핵화는 구소련의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이었고, 남아공이나 리비아의 경우 자체적인 역량도 낮은 상태에서 핵개발 초기단계부터 이뤄진 비핵화였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러한 사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이 일단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에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길에 나왔을까?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략 때문이라고 흔히 얘기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데 따른 자신감과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도 한몫했을 것이다.

비핵화 협상을 이끌고 있는 다른 두 지도자들도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제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비확산체제(NPT)의 유지와 같은 대의명분도 중요하다. 외교적 성과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것 또한 민주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두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성공적인 타결로 나아가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협상분석에 흔히 사용되는 ‘양면게임(Two-Level Game)’의 논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상에 임하는 협상대표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상대방 협상대표와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합의가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협상과 국내협상 양면 모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협상안들의 집합/범위를 가리키는 개념이 ‘윈셋(win-set)’이다. 협상이 쉽게 타결되려면 쌍방 모두의 윈셋이 커야 한다. 협상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상대방의 윈셋은 늘리고 자기의 윈셋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협상타결을 간절히 바라면 자신의 윈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음 주 18~20일 2박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의 도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진행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이다.

셋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윈셋을 줄일 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타결이 어려운 이유는 세 지도자의 윈셋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핵무기라는 이슈의 민감성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라는 ‘국가안보의 보검’을 포기하는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려 한다. 선불리 포기했다가 배신을 당하면 국가와 체제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어렵다. 과거 북핵 협상 실패의 교훈과, 북한이 아직도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성과를 내서 국내 정치적 이득을 보려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 두 지도자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문 대통령 역시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당장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안 통과도 쉽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늦어질수록 국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만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성실한 신고이다. 매우 민감한 이슈이지만, 북한의 성실한 신고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윈셋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윈셋을 키워 주어야 한다.

두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자신의 윈셋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구심을 갖고 있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타협이다. 국내 협상이 중요하다. 그래야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 압박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두 정상은 서로를 도와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의회와 전문가들에게 북한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한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확인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멀고 험하지만 가볼 만한 길이다. 세 정상의 잦은 만남이 서로의 정치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려면, 세 지도자가 서로 상대방의 윈셋을 키워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의 윈셋도 더욱 크게 만드는 선순환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9월, 10월에 펼쳐질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이러한 선순환의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여마당

쿠캣
김정화(식품영양학 2015) 회장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 왜 존재해야 하는가?

지난학기 끝자락에 우연히 교내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시작하며 ‘경희대 고양이’를 뜻하는 ‘쿠캣(KHUCAT)’ 동아리를 만들게 됐다.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에 대한 반응은 흔히 두 가지로 나뉜다. “재밌겠다. 나도 해볼까?”, “그런게 있으니까 맨날 시끄럽게 물어대는 거 아니야? 대체 왜 하는 거래?”

주변 사람들은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까지 하며 왜 쿠캣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냐고 묻는다. 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누군가가 나였을 뿐이다.

대학 내 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고양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활동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고양이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부원들에게도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활동하자고 강조한다. 고양이가 급어지 주변에 서식하는 경우가 있기에 급어 장소를 정할 때도 까다롭게 선정했다.

쿠캣의 1차 목표는 교내 길고양이가 굶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추위를 나게 하는 것이다. 동아리에서 급어를 하고 고양이를 돌보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문이 있다. 길고양이 돌봄 활동의 핵심은 TNR이다. 쿠캣의 2차 목표는 TNR을 통해 길고양이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TNR은 Trap(포획), Neuter(중성화 수술), Return(제자리 방사)을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 동물법에도 명시돼 있다. 불임수술 후 원래 살던 자리에 방사하고 보살피는 것까지가 TNR이다.

TNR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안락한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고양이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TNR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발정길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또한 줄일 수 있다. 고양이들이 겪는 성호르몬 관련 질병이나 잦은 임신으로 인한 건강 악화도 막을 수 있다. 즉, 인간의 편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활동이다.

장기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케이프 대학교 사례처럼 캠퍼스에서 길고양이를 없애는 것이 목표다. 웨스턴케이프 대학교는 동물 복지 단체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며 TNR과 입양 활동을 진행했다. 결과 400마리에 달했던 길고양이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10마리의 노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고양이가 없어 길고양이 동아리도 존재 위기에 처했다는, 슬프지만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다.

길고양이라고 불리는 펍박란은 존재들이 없어졌으면 한다. 당장 한 두 해 사이에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도 없다. 쿠캣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우리학교가 대표적인 길고양이 돌봄 활동의 성공적 사례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쿠캣은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을 바로잡고 알려가려 한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 상생하는 경희대학교와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는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쿠캣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언어 습득의 비밀 - ②

머릿속 연결망



외국어대학
김영주(한국어학) 학장

비행기를 타면 늘 좌석 앞의 주머니에 있는 책자에서 노선 안내를 퍼본다. 세계 지도 위에 그려진 노선 연결망을 보면서 어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여 비행기가 취항하는지 그리고 어느 노선을 자주 취항하는지를 살펴본다. 자주 다니는 노선일수록 선이 굵고 덜 자주 다니는 노선은 선이 얇다. 최근의 뇌인지 과학에서는 우리의 뇌도 이런 연결망의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 뇌의 단어 연결망 자주 쓸수록 강하고 굵어져

뇌는 언어 습득과 함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고유한 연결망을 형성한다. 물론 그 세세함과 복잡함은 비행기 노선에 비할 바가 아니나 뉴런 간 시냅스들의 뾰뾰한 연결망이 우리 뇌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얼마나 자주 접하고 사용했는지는 머릿속의 연결망과 연결들의 굵기가 말해준다. 자주 접하고 사용한 단어들 사이

에는 강하고 굵은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늘고 불안정한 연결망이 형성된다.

우리의 뇌가 처음부터 연결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예정되어 태어나나 그것들은 연결망의 방향뿐만 아니라 초기의 뇌는 주위환경과의 물리적 상호작용, 즉 느끼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감각 연결망을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유아의 연결망 형성은 언어를 접하게 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김영주 학장이 추천한 책 <더 브레인>은 BBC에서 방영된 동명의 방송 핵심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것이다.

발전하게 되어 뉴런은 사통팔달로 연결되게 된다.

연결망 형성 시기에 유아의 언어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가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 유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웅얼이의 길이가 길어지고 웅얼이를 구성하는 소리도 다양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주는 교감이 언어 습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유아의 언어 발달은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에 비례

유아기에 접하는 언어의 양과 질의 우수함도 언어 습득에 중요하다. 2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집단에서 발화량이 많고 표현이 풍부한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또래 아동들의 평균보다 2~3 배 정도 어휘 인지가 빨랐다. 들리는 언어에 민감해지고 이에 반응하면서 말을 배우는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은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연결망을 형성한다.

우리 뇌의 연결망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경험을 통해 축적된 혹은 학습된 연상에 기초한다. 처음 고양이를 접했을 때 고양이란 단어와 그 의미의 단순한 연결은 더욱 많은 종류의 고양이를 접함에 따라 그 의미 범위가 확장되어 간다. 어린 시절 고양이에게 할름을 당했던 기억은 고양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서움, 긴장 등의 단어를 연결하고 우리 몸이 반응하게 한다. 이렇듯 삶의 경험이 우리 뇌의 연결망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빈번하게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주어와 동사의 성·수 일치(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의 j'aime 등), 혹은 명사와 관사의 성·수 일치(프랑스어의 la chaise 등)를 통해 자주 같이 사용되는 단어들 사이에도 강한 연결망이 형성된다. 비단 문법에서 만이 아니라 단어 간 사용도 마찬가지다.

‘새빨간 거짓말’과 같이 언어 공동체에서 자주 함께 쓰이는 두 단어의 연결도 매우 강하여 머릿속에서 굵은 줄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필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간의 연결도 그럴 것이다.

뇌의 연결망은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다

인간의 뇌는 미완의 상태에서 무한한 연결 가능성을 잠재한 채 태어난다. 잠재적 가능성은 성장하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하고 변화한다. 우리의 머릿속 언어가 고운 말로 쉬이 연결되는지 미운 말로 쉬이 연결되는지는 과거의 우리 경험과 생활이 결정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뛰어나 언제든 과거의 것을 넘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뇌의 연결망에 대해서는 신간 ‘더 브레인’에서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인터뷰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목표로, 강채영의 골든 스토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강채영(스포츠키도학 2015) 선수가 또 다시 해냈다. 20살, 어린 나이에 ‘2015년 WA 제1차 월드컵 대회’ 2관왕(개인전, 단체전)을 달성하고 2년 뒤엔 ‘2017 현대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단체전, 혼성전)을 달성했다. 지난해 우리신문과의 인터뷰(경희대 신궁의 시작은 ‘멋있어 보여서’/대학주보 제1628호, 2017.11.2)에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이 목표라고 당당히 말한 강 선수는 지난달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말은 유명하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국가대표 4명은 아시안게임 예선에서도 경쟁을 이어간다. 국내 선발전 점수와 예선 점수를 계산해 1위는 개인전과 혼성전, 단체전에, 2위는 개인전과 단체전, 3위는 단체전만 출전한다. 4위는 본선에 출전하지 못한다. 국내 선발전 3위였던 강 선수는 아시안게임 예선 성적으로 팀 내 2위를 기록해 개인전과 단체전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대회 이전부터 컨디션을 끌어올린 것이 예선전 좋은 점수의 비결인 것 같다”는 강 선수는 예선전에서 대회 기록을 세웠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7점을 쏜 것이 아쉬웠다”고 회상했다. 예선전을 1위로 통과한 강 선수였지만 그녀에게 개인전 금메달은 허락되지 않았다. 4강에서 만난 중국의 장시난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4-6으로 패배한 것이다.

대표팀 만만니 장혜진(LH스포츠단) 선수의 8강 탈락이 큰 부담이었다. 강 선수는 “8강에서 헤진 언니가 탈락하고 내가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팀 순위 3위로 밀려난 이은경(순천시청) 선수의 뒷까지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컸다고 한다. 그래서였지만 강 선수는 식사 시간에도 오직 경기 생각 뿐이었다고 한다.

동메달 결정전도 순탄하진 않았다. 양궁 개인전은 세트제로 진행된다. 한 세트에 각 선수가 3발씩 쏘고 상대 선수보다 점수가 높으면 승점 2점, 같으면 1점, 낮으면 0점을 세트스코어로 가져간다. 총점 6점을 먼저



그랜드슬램이 목표라는 강채영 선수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년 뒤 올림픽을 준비한다.

얻으면 승리한다. 강 선수는 1세트에서 승점 2점을 가져왔지만 2, 3세트를 내리 내주게 됐다. 하지만 강 선수는 동요하지 않았다.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경기장에 들어가면 전까지도 여러 상황을 생각하며 훈련했고, 그냥 자신에게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며 승리의 비결을 말했다. 4, 5세트 6발을 연속으로 10점에 명중시킨 강 선수는 금메달보다 빛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아쉽지만 아쩔 수 없었다. 4강에서 탈락한 후 자괴감을 느꼈다는 강 선수는 “동메달을 따긴 했지만 많이 아쉬웠다”는 소감을 전하며 “마지막 경기를 제가 원하는 대로 풀어나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시련은 개인전 준결승 탈락, 딱 거기까지였다. 개인전 이후 열린 단체전 결승전에서 강 선수는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6연패 금자탑을

세운 국가대표팀의 중심에 강 선수가 있었다. 개인전 준결승 탈락으로 흔들렸을 법도 하지만 강 선수는 그러지 않았다. “지난 경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경기에 초점을 맞췄고, 지나간 결과에 좌절하면 남은 경기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강 선수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이 마음이 더 편했고 자신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만과의 여자 단체전 결승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값진 금메달이었다. 마지막 세트에서 대만을 한 점차로 이기며 금메달을 확정할 순간, 강 선수는 “올해 연습하면서 고생했던 것이 스쳐 지나가면서 기뻛고 감격스러웠다”며 당시 소감을 말했다. 강 선수는 “눈물이 날 뻔 했지만 나오지는 않았다”라며 웃었다. 침대나 생활 물품도 열악했고 식사도 부실했다고 한다. 더욱이 올해 한국의 더위만큼이나 뜨거웠던 자카르타의 더위를 극복하고 얻어낸 금메달인



(사진=마이데일리 제공)

만큼 더욱 귀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된 만큼, 학교 안에서 강 선수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한다. “알아보는 학생도 있고 사인해 달라는 학생들도 있다”며 “사인을 해주긴 하는데 아직은 부끄럽다”며 웃는 모습에서 활을 쏠 때의 매서움과 다르게 아직한 어린 대학생 선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강 선수에게 첫 아시안게임이자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었다. 그런 만큼 의미도 남달랐다. “월드컵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와 다르게 종합대회였고 그런 큰 대회를 경험해 보는 것이 의미 있었다”는 강 선수는 “우리학교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강 선수는 매 대회마다 체스트(가슴보호대)에 우리학교 마크를 붙이고 출전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강 선수는 ‘경험’이라는 열매를 맛봤지만 한편으로는 만

만치 않게 성장한 세계 양궁의 상향평준화를 느꼈다. ‘메달 밭’이었던 과거 양궁 대회와 다르게 이번 대회에선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석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 선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계셨던 지도자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경기할 때 예전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요인으로 상대팀 선수들의 경험 축적을 꼽았다. 하지만 강 선수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팀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선수는 이제 2년 뒤 열릴 2020 도쿄 올림픽을 조준한다. “우선 내년에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고, 2년 뒤 올림픽 3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강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발판으로 다음 올림픽 때는 발전한 강채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제대회 일정은 없지만 강 선수는 오는 10월, 다시 경희대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항상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강 선수는 감독님과 학생들에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강 선수는 우리학교 양궁부를 위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양궁장 시설이 열악해서 장마철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기도 한다”며 “저는 곧 졸업하지만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궁부에 감독님 외에 코치님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과 같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랜드슬램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강 선수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선수는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만족한다는 것은 곧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올림픽 3관왕을 이루고 그랜드슬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선수는 대한민국 양궁의 세대교체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로 평가받는다. 대학 1등, 대한민국 1등, 아시아 1등을 넘어 세계 1등이 될 강 선수의 선수 생활을 응원한다.

철학하는 물리학자 김상욱의 메시지, “과학은 교양이다”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평소 존경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을 것 같았다. 실제로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충분히 즐거웠다.” 화제를 모았던 ‘알쓸신잡3’에 출연하는 김상욱(물리학) 교수의 촬영 소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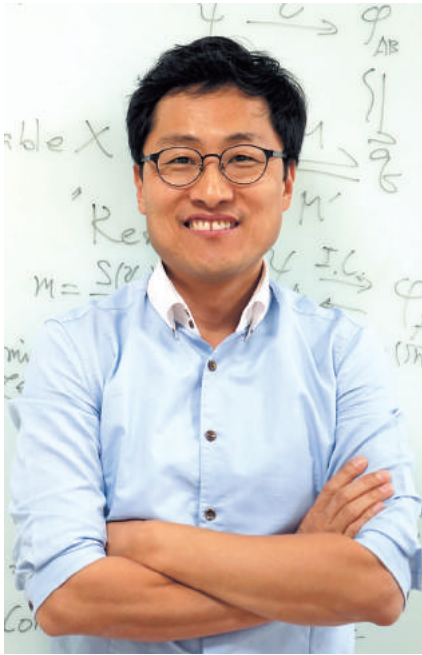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는 암묵적으로 ‘교양’으로 치부되는 것들이 있다.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교양으로 여겨짐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떠한가? 김 교수는 “과학도 교양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물리학은 직업이자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김 교수는 여느 1등 학생들처럼 판·검사를 꿈꿨다. 그러나 우연히 접한 〈양자역학〉이라는 책은 김 교수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 교수는 이를 몇 십번 읽으면서 “나는 평생 양자역학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금 생각하면 〈양자역학〉은 허무한 책이었다”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한 책을 보고 인생을 결정했나 싶다”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시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 교수는 자타공인 ‘철학하는 물리학자’로 통한다. “물리학자는 온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며 “우주를 논하다 보면 자동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길이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우주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를 인문학자라고 느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부산대에 재직하던 시절에는 ‘양자정보 연료 엔진’을 최초로 제안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연구와 강의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과학전도사의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김상욱의 과학공부〉, 〈과학수다1·2〉, 〈김상욱의 양자공부〉등의 저서들이 그것이다. 그의 책은 여느 딱딱한 과학책과는 달리 일상적인 언어와 유머로 어려운 내용들을 자연스레 녹인다. 그래서인지 김 교수는 책 전문가 46인이 선정한 ‘2016년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하는 물리학자’라는 그의 별명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에게 주어진 훈장인 셈이다. 김 교수는 인문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양자역학으로 움직이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인문학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인문학이 구성원들의 합의와 그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과학은 합의에 최소한의



것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소 수입 사건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과학자를 향했다. “광우병 소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요?”에 대한 과학적 답을 원하는 시선이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광우병 소고기를 먹으면 백만분의 일 확률로 병에 걸립니다”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답의 전부라고 말했다. 광우병 소 수입 여부는 인문학의 몫인 셈이다. 이에 김 교수는 “대부분의 문제는 중간에 있지만 양쪽 극단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인문학의 영역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교양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교양은 앞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성찰의 결과를 행동으로 이끄는 모든 지식”이라며 “과학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양과목처럼 성찰을 돕는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 교수는 세포를 ‘레고블럭’에 비유했다. “조립이 자유로운 레고처럼 세포를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인간이 되고 저렇게 조립하면 바퀴벌레가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어느 생명체가 더 우월한지는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김 교수는 “과학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해 행동을 변화시켰다”며 과학 역시 교양으로 인식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김 교수의 바람에도 물리학, 즉 과학은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학문이다. 특히 문학이나 역사와 달리

인문계열 학생들은 그것을 전혀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학공부에 대한 당위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업은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뿐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며 과학 학습의 당위성을 깨닫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학기에 경희사이버대학과 연계해 개설한 ‘모두를 위한 물리학’이라는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목표는 모든 타 전공 학생들이 물리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모두를 위한 물리학’에 대해 “소설을 읽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면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마찬가지로 물리학이 그러한 학문이기를 바라면서 만든 강의”라고 말했다. 인터스텔라를 비롯한 SF 영화와 인문학적 비유를 사용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는 김 교수는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과학 학습의 당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가 출연하는 ‘알쓸신잡3’는 오는 21일 첫 방송된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김 교수는 “공부와 연구에 힘을 쏟아 과학지식 전달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